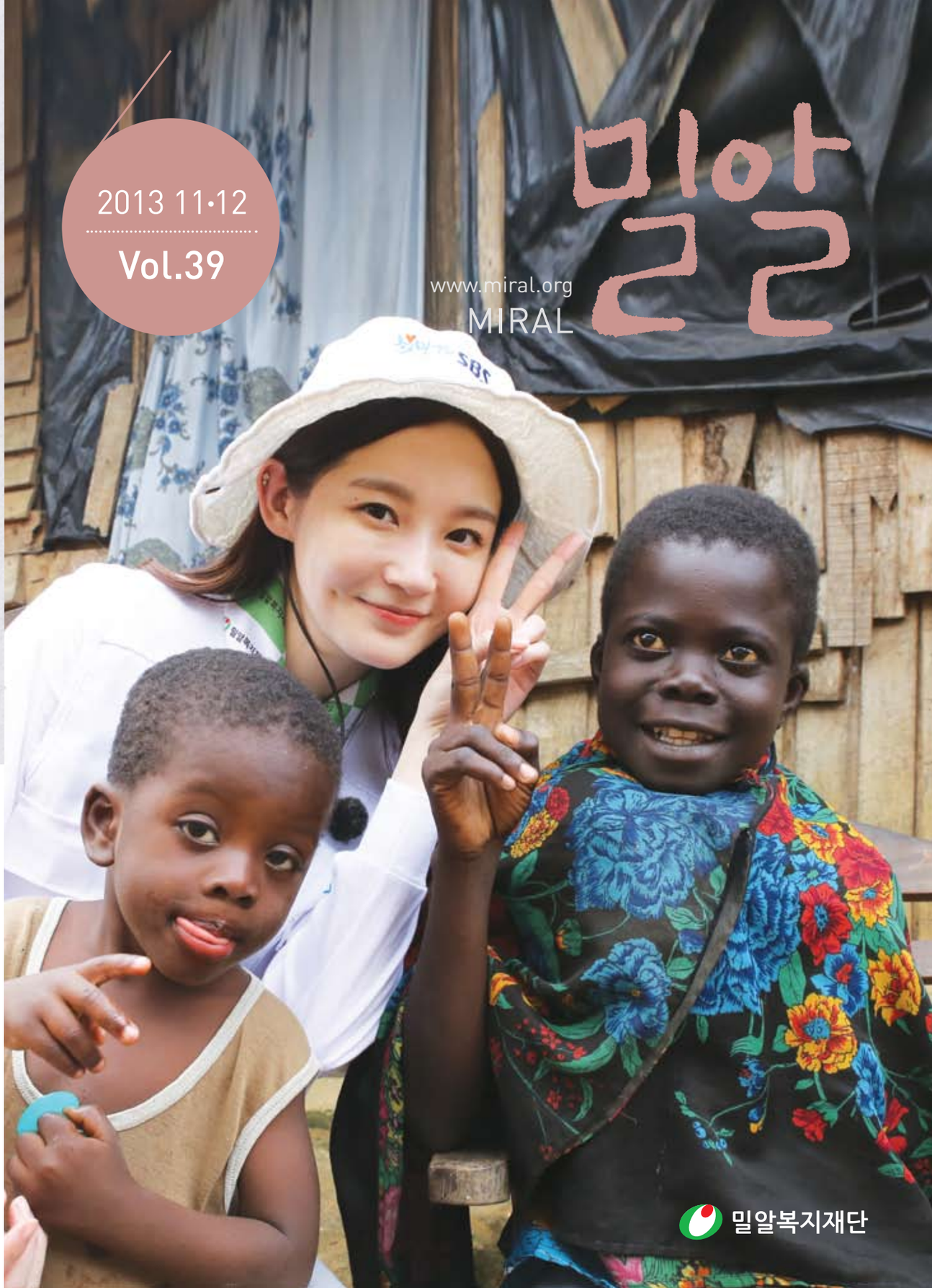
외식업소 사장님들의
웃음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외식산업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경영전문지
월간 외식경영

(월간지 / 단행본 발행
교육사업(투어 · 세미나 · 조리전수)
컨설팅 홍보 마케팅)

(주)외식경영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4-2 현빌딩 3층 | www.foodzip.co.kr | 구독 · 광고 · 컨설팅 문의 02-518-3632



밀알

2013 11·12
Vol.39

www.miral.org
MIRAL

밀알복지재단

[국내사업장]

| 법인사무국 | 02-3411-4664
경남지부 1600-0966
전남지부 1600-0966
전북지부 1600-0966

| 나눔사업본부 | 070-8708-8178

| 장애인복지사업 |
강남구직업재활센터 02-2184-8700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 02-6913-9100
굿윌스토어 밀알도봉점 02-6910-9191
밀알그린보호작업장 02-3411-8300
밀알그룹홈 나눔의 집 02-3401-1084
밀알그룹홈 동행의 집 055-754-9096
밀알그룹홈 섬김의 집 02-449-3478
밀알단기보호센터 02-3414-0314
밀알주간보호센터 02-3414-0314
밀알베이커리 02-2184-8702
밀알보호작업장 02-2184-8740
밀알연구소 02-3411-4665
밀알학교 02-3412-1133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 031-777-9041
아름드리그룹홈 031-414-3171
안산밀알보호작업장 031-402-2484
안산시장애인복지관 031-403-0078
안산밀알센터 031-401-0902
옥수그룹홈 031-705-3398
온유한주단기센터 031-418-9863
우리플러스작업장 02-2184-8750
한우리주간보호센터 02-2184-8700
해마을주간보호센터 02-3412-2222

| 노인복지사업 |
도봉노인종합복지관 02-993-9900
도봉데이케어센터 02-993-6670
도봉시니어클럽 02-3492-3009
도봉실버센터 02-955-6080
도봉실버데이케어센터 02-955-6080
도봉재가노인지원센터 02-3494-6060
도봉고령자취업알선센터 02-993-1988
목련데이케어센터 02-3412-2226
서울도봉실버데이케어센터 02-955-6090
서초중앙노인종합복지관 02-3474-6080

| 지역복지사업 |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02-3412-2222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2-3414-3346
대청종합사회복지관 02-459-6332
쌍봉종합사회복지관 061-681-7179

| 아동보육사업 |
면일어린이집 02-495-4604
목련어린이집 02-3412-1999
부암어린이집 02-396-6226
중림어린이집 02-364-7534
청마을어린이집 02-459-6335

| 문화, 일자리사업 |
밀알아트센터 02-3411-4661
사회적기업 청밀 02-459-8860

[해외사업장]

기니비사우 +245-574-6516
남아프리카공화국 +27-79-527-9117
네팔 +977-1-431-5485
라이베리아 +231-886-668097
마다가스카르 +261-2022-44496
말라위 +265-992-129-931
방글라데시 +880-171-510-7842
시에라리온 +232-76-606074
아이티 +509-2-224-1832
에티오피아 +251-911-760-422
이스라엘 +972-52-547-1422
우간다 +256-776-771-324
우크라이나 +38-0974-338-961
짐바브웨 +263-777-330-752
중국 +86-133-448-7401
케냐 +254-732-625-987
코트디부아르 +225-0705-8783
필리핀 +63-922-739-7017
탄자니아 +255-754-344-495
태국 +66-86-191-6122

후원전용 계좌
우리은행 322-058119-13-001
신한은행 140-006-896511
하나은행 810-213130-0010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회원전용 번호 1600-0966

www.miral.org
밀알복지재단

밀알 MIRAL

2013 11·12 Vol.39
www.miral.org

표지설명

가수 다비치의 멤버 강민경씨가 코트디부아르 봉사활동 중에 아이들과 함께 재밌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Contents

인사말	04	밀알의 강점은 밀알정신이다
사진이야기	06	밀알은 '섬김'입니다
현장이야기	08	밀알복지재단과 희망TV SBS가 함께하는 아프리카 희망 노래
특집	12	'약함의 힘'이 이루어 낸 기적의 20년 ⑥
사연이 담긴 이야기	18	미소천사 정연이를 처음 만난 날
수필	22	마다가스카르 암바나뚜바나 학교 이야기
나눔세상	25	마지막, 그 설렘의 시간
장애인식개선	28	장애아 부모로 산다는 것
재단소식	31	법인사무국 및 산하시설 소식
회계보고	34	9,10월 회계보고
연말정산 안내	35	2013년 기부금 공제 안내

밀알복지재단

밀알복지재단은 사랑과 봉사,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1993년 설립되어 44개 산하시설과 3개 지부를 통해 국내의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소외계층 대상 복지서비스와 자립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해외 20개국에서 특수학교 운영, 빈곤아동 교육지원, 이동진료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전개하는 전문사회복지단체입니다.

섬기는 사람들

이사장 • 홍정길 **상임대표** • 정형석 **이사** • 김명희, 김종인, 김주영, 박상범, 손봉호, 송창국 **명예이사** • 노상헌, 박완철, 이민우, 장형옥, 정현만, 정형철
감사 • 김재훈 신명철 황호찬 **실행위원** • [특수교육위원회] 구자영, 박완철, 양문봉, 이유진, 이종면, 정태충, 정형석, 정형철 [직업재활위원회] 김귀자, 김명환, 류제룡, 박정열, 손만석, 신명철, 이민철, 정형석 [복지위원회] 강영실, 강태인, 김명희, 류미희, 박소영, 신민선, 이은주, 임종학, 정형석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김혜경, 윤지준, 전명희, 정현만, 정형석, 최미경, 한정국 **전문위원** • 김두현, 김미옥, 이천화, 전승만

밀알 2013 11·12 Vol.39

제호 • 밀알Miral(통권39호)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발행 및 편집인** • 정형석 **주소** 135-884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34, 201호(수서동, 한울오피스텔) **TEL** • 대표번호 02-3411-4664 **회원전용 1600-0966** FAX 02-3411-4779 **디자인** • 이룸디지털 **인쇄** • 동신인쇄 **글** • 정새롬 카피라이터

www.miral.org http://miralorg.tistory.com www.facebook.com/miral4664 www.twitter.com/miral1993

밀알의 강점은 밀알정신이다

지난 7월, 우리 법인은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몇 가지 행사를 개최하였다. 기념세미나, 감사예배, 20년사 〈한 알의 밀알〉 출간 등을 하였다. 이런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밀알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평가하며 미래를 계획해 보았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직원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후원자 및 봉사자들의 성실한 협력으로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다. 2013년 현재, 연간 약 500억 원의 예산으로 국내에서 40여 개의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해외 20개의 나라에서 다양한 개발사업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과 성숙은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다.

밀알이 이처럼 한국사회와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밀알의 강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밀알의 강점 중에 최고의 강점은 밀알정신이다. 밀알의 이념이 되는 밀알정신은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겸손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밀알정신의 핵심은 사랑과 겸손과 희생이다. 예수님은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밀알의 주인과 선생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의 정신은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밀알에는 예수님의 밀알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보배로운 두 스승이 있다. 초대 이사장 손봉호 교수는 밀알정신으로 모범적인 삶을 사시는 분이다. 손 교수는 재정과 인사를 투명하게 처리하는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셨다. 투명성을 생명으로 하는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스승의 모본을 통하여 겸손과 희생을 추구한 결과 자연스럽게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었다. 또한 현 이사장 홍정길 목사는 밀알정신으로 빈곤과 장애 등으로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자발적인 불편운동을 통해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셨다. 홍 목사는 목회자로 섬겼던 선교하고 봉사하는 남서울교회와 장애인과 함께하는 남서울은혜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은혜로운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다. 이러한 정신 때문에 우리 밀알이 부족하지만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세상을 섬기는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20주년을 맞이한 청년 밀알은 최고의 강점인 밀알정신을 영성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 영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사회복지실천은 아름답고 감동적인 열매를 맺기 어렵다. 지금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는 도덕적인 해이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국제개발 실천현장에서는 구호사업의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생산적인 복지가 강조하는 자립과 자활과 재활 등은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밀알은 가장 소중한 영적인 자산인 밀알정신을 강화해야 한다.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 정 형 석

밀알복지재단 안산시장애인복지관이 주최한 '2013 안산시 장애인합동 걷기대회'가 10월 18일 경기 안산시 수변공원 일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홍보대사 배우 이필모씨도 함께 참여해 휠체어를 밀며 걷고, 장애인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장애인들과 함께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그날을 꿈꿉니다.

밀알은 '섬김'입니다

밀알복지재단과 희망TV SBS가 함께하는 아프리카 희망노래

강민경씨가 마을 아이들과 밝게 웃고 있다.

| 첫 번째 이야기 |

"쓰레기더미 속에서도 꿈은 피어납니다."

2006년 월드컵에 출전한 세계적인 축구선수 디디에 드록바가 내전을 멈춰달라고 호소할 정도로 최근까지 내전이 계속되었던 나라 코트디부아르.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코트디부아르는 종족 또는 정치세력간 갈등이 오랜기간 지속되어왔고, 2002년 내전이 발발해 2011년에야 사실상 종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아프리카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작은 파리'라 불렸던 아비장은 인적도 드문 어둠의 도시로 변해 버렸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다니기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가슴 속엔 꿈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8월 21일부터 9월 4까지 그룹 다비치의 멤버, 가수 강민경씨와 밀알복지재단, 희망TV SBS가 함께 코트디부아르로 다녀왔습니다. 약 십년간, 비공식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오래된 갈등과 내전으로 황폐해진 코트디부아르, 그 땅에서 굶주리고 아픈 아이들의 모습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피부에 계속 수포가 생겨나는 두 자매

쓰레기가 넘실대는 바닷가 마을, 악취와 벌레들이 들끓는 곳에서 아이들은 위태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 곳에서 온 몸이 피부병으로 뒤덮인 마와(13세, 여)와 아이샤(5세, 여)를 만났습니다. 마와는 이 나라의 여느 아이들이 그렇듯 이미 생계를 위해 일을 돕고 있습니다. 양잿물을 만들어 파는 것이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 매일 독한 양잿물을 들고 배달하느라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두 자매 모두 생후 100일 정도부터 피부병이 발병했는데, 생계유지만도 급급한 부모님은 병원에 데리고 갈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민경씨는 두 아이를 계속 안아주며 함께 아파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가보는 병원을 무서워하자 학용품을 선물 하는 등 계속해서 아이들 마음을 만져주려 애쓰는 모습은 보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전해 주었습니다.

검사결과 병명은 선천성 수포성 표피 박리증(epidermolyse bulleuse congenitale)으로 현지 의료수준으로 완치는 불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 완화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완치가 안 된다는 사실도 마음 아프지만, 약 값이 월 5만 세파(한화 약 11만원)로 한 달 소득이 6만 세파에 불과한 마와네 가족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한창 뛰어놀고 꿈꿀 나이의 아이들이 빈곤과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 가장 안타까워요. 계속 꿈을 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 가수 강민경

가난을 교육으로 극복하고 싶은 청년들

다른 마을에서 우리는 해가 진 저녁에 문을 여는 학교를 발견했습니다. 어두컴컴한 교실에는 20여 명의 아이들이 모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종일 일을 하느라 피곤한 몸이지만, 아이들은 공부가 하고 싶어 이곳을 찾아옵니다. 비록 학교에 다니지는 못하지만 아이들은 장관, 의사, 교사와 같은 다양한 꿈을 이곳에서 꽃피웁니다.

쓰레기로 뒤덮인 마을과 주민들

야학에서 공부하는 아이

33명의 청년들이 뜻을 모아 만든 이곳은, 비록 나라가 가난하지만 아이들이 읽고 쓰는 것이라도 할 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들은 자신들이 번 돈을 십시일반으로 모아 운영하며, 노동에 지친 아이들을 위해 손수 저녁식사도 준비합니다.

이곳에는 4달 전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집 안의 가장 역할을 하며 꿈을 키우는 우마,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 할머니와 둘이 살며 쓰레기를 버리는 일을 하는 마리암 등 하나같이 역경 속에서도 꿋꿋이 삶을 감당하는 아이들로 가득합니다.

강민경씨는 어린 나이와 조그마한 체구로 노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아이들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는지 사비를 털어 밥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비록 현실은 어렵지만, 이렇게 훌륭한 청년들과 꿈을 꾸는 아이들이 있어 코트디부아르의 미래도 분명히 밝아질거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아이들에게 밥을 사주는 강민경씨

| 두 번째 이야기 |

"플로렌스야, 밝고 씩씩하게 자라렴!"

어린이집 친구들과 어울리는 플로렌스

지난 5월 '희망TV SBS'를 통해 소개되었던 우간다 아동 플로렌스(13세, 여)가 우리나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8월 21일(수) 인천공항에 도착한 플로렌스는 바로 고대구로병원으로 이동해 혈액검사와 CT, MRI 검사를 진행한 뒤 이틀 뒤인 23일(금) 안구 종양 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병명은 혈관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플로렌스는 태어난 지 다섯 달째부터 갑자기 한쪽 눈이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뭉그러진 상태로 밀알복지재단과 만났습니다. 계속 피고름이 흘러내리는 상황이었고, 혐오스럽게 변해버린 눈으로 인해 자신감을 잃어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고민한 끝에 밀알복지재단은 한국으로 후송진료를 결정했고, 이번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플로렌스의 입국 날, 지난 희망TV 촬영으로 플로렌스와 인연을 맺은 배우 예지원씨도 함께 플로렌스를 기다리고 병원까지 동행했습니다. 예지원씨는 조그맣고 몸도 아픈 아이가 엄마도 없이 긴 비행을 견디고 온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플로렌스를 보자마자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1차 수술을 마치고 퇴원한 플로렌스는 일주일 정도 우리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련어린이집에 다니며 아이들과 밝은 모습으로 어울리고, 놀이동산과 민속촌 등에서 야외활동도 즐겼습니다. 이전에 겪지 못했던 상황들이 마냥 신기한 듯 여느 어린아이들과 같이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여줘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했습니다.

이후 경과를 지켜보며 치료방식에 대해 우리 재단과 고대구로병원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수술경과는 매우 좋았지만 오랜 기간 병을 앓아 왼쪽 눈의 시력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눈꺼풀이 완전히 감겨지지 않는 문제 때문에 미관상 이유로 의안을 넣는 방법도 고려했지만, 아이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술이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0월 8일 눈에 약간 남아있던 종양을 마저 제거하는 간단한 수술을 받은 플로렌스는 약 한달 간의 통원치료를 거쳐 11월 6일 우간다로 귀국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도움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플로렌스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글 _ 홍보팀 조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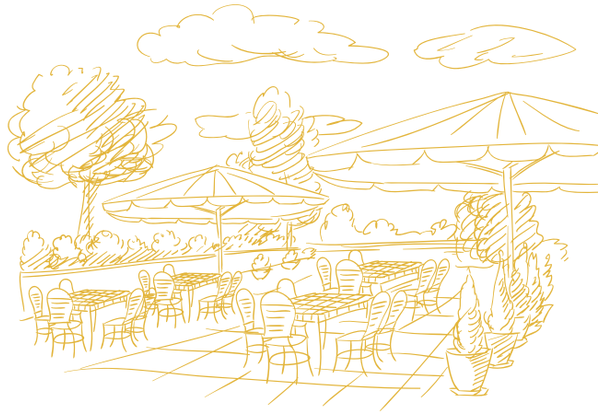
밀알복지재단 설립 20주년

약함의 힘이 이루어 낸 기적의 20년

1화_ 약한자를 위한 기적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화_ 이 아이들에게도 '배움'이 필요합니다.
3화_ 장애인복지 1부
4화_ 장애인복지 2부
5화_ 노인복지사업
6화_ 지역복지사업

결혼이민자 네일아트 자격증 취득

건강한 가정, 지역주민을 위한 노력
우리는 당신의 꿈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이웃되기,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싸와디캅(안녕하세요)"

강남의 어느 카페. 결혼이주 여성 남안티카씨가 일하는 곳이다. 하루 평균 250~300명의 손님이 찾는다는 카페오아시아. 혹시라도 커피 맛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맛을 보고나면 남안티카씨가 다시 보인다. 전문 바리스타의 솜씨이기 때문이다. 언어소통도 쉽지 않은데 카페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고 물으니 오히려 즐겁고 행복하다는 남안티카씨.

"일을 하면서 오히려 한국말이 많이 늘었어요. 늘 손님을 상대하다보니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구요. 열심히 일해 나중에 내 카페를 하나 내는 게 꿈이에요"

2007년 밀알복지재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합동결혼식을 올린 남안티카씨는 어느덧 결혼 5년차 주부가 되었다. 그녀는 카페 일이 길지 않아 퇴근 후 주부의 일을 할 수 있어서 더욱 좋다고 한다. 일도 중요하지만 결혼생활에 잘 적응하고 꾸려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한다.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전경

다문화 합동결혼식

"집에서 한국어 방문교육을 받고 있어요. 저도 한국에 와서 처음엔 언어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글을 배우고 취업을 위한 기술도 배우면서 이제는 한국 아줌마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잘 적응하고 있어요. 다른 결혼이주여성들도 저처럼 복지관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0년 2월 밀알복지재단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위해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강남구 거주 840여 세대 다문화가족을 위해 한국어교육, 가족 및 자녀교육 상담, 통 · 번역 등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주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양한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종합복지센터이다. 1층에는 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데이케어센터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2층에는 장애아동통합보육시설인 목련어린이집, 3층과 4층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일자리에 주목하다, 사회적기업 청밀

고령화로 인한 부양부담, 장애인에 대한 편견, 대량 실업사태 등 다양한 사회문제는 늘 밀알복지재단의 화두였다. 노인, 장애인, 탈북자, 다문화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의 곁에서 그들을 도우며 느꼈던 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밀 바자회

일자리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체 안에서 소통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이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2008년, 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 '청밀'을 설립한다.

청밀은 2008년부터 식자재 유통사업을 통해 사회복지기관과 장애인복지기관 등에 식자재를 납품했고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일자리 창출서비스를 펼쳐왔다. 장애인과 노인도 자신이 원한다면 직업을 갖고 일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자아실현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청밀은 또한 윤리적인 소비를 통해 식품안전, 환경, 우리농업을 지키며 일상 생활문제에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다.

농산물 임가공을 하는 모습

협력과 지지의 성장, 대청종합사회복지관

밀알복지재단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지역의 문제예방과 해결을 돕기 위해 대청종합사회복지관과 쌍봉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아동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학습

대청종합사회복지관과 쌍봉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 가족의 통합적 접근 및 지원을 위해 가족기능강화사업과 위기가정 및 복지사각지대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고충상담 및 욕구에 알맞은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례관리, 경제적 · 신체적으로 어려운 주민을 위한 급식, 보건, 재가지원과 지역주민 네트워크 구축, 교육 · 문화지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대청종합사회복지관 김장나눔

밀알복지재단은 장애인, 아동, 노인을 위한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을 하는 동시에 각 가정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지역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이 아닌, 꿈을 가지고 배우며 직업을 가지고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알려줘 모두가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글 _ 홍보팀 김미란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더 돌아본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을 나눈다면, 함께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Smile

미소천사 정연이를 처음 만난 날

하얀 피부에 맑은 눈망울...
정연이를 처음 보았을 때, 누운 채로 저를 향해 해맑게 웃어주던 모습에 제 마음까지도 환해졌던 그 날이 기억납니다. 티 없이 맑은, 천사와도 같은 웃음을 전해주었던 정연이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막내인 정연이는 유난히 사이가 좋으셨던 부모님과 형, 누나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루하루 정연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가족들의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연이의 성장과정에서 어머니는 정연이가 또래 아이들과 다른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을 맞추고 한창 옹알이를 해야 하는 시기에 아이는 눈을 맞추지 못하고, 뒤집기를 하는 시기에 뒤집기를 하지 못하였고, 기어 다녀야 할 시기와 말을 하는 시기에도 정연이는 아무런 움직임도, 말도 없었습니다. '우리 정연이가 조금 늦는 거겠지. 곧 하나하나 하겠지.'라고 생각했던 어머니는 아이가 성장과정에 따른 발달을 보이지 않자 서서히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됩니다. 진단을 받던 날, 어머니는 의사선생님으로부터 정연이가 뇌병변 1급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연이가 태어나던 해에 정연이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사업이 망하게 되어 많은 빚을 지게 되고, 결국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가압류 당하게 됩니다. 눈앞이 캄캄해진 상황에, 정연이가 경기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번 시작된 경기는 그 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한밤중에 응급실에 실려가 처치를 받는 아이를 보며 어머니는 밤새 눈물로 간호하며 경기가 멈추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형편에도 정연이의 치료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연이의 치료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닥치는대로 열심히 일을 했고, 어머니는 정연이의 장애를 완화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과 치료실을 뛰어다니며 가정의 경제를 돕기 위하여 시간을 쪼개어 부업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지금까지 정연이를 10년간 돌보아 왔습니다. 어머니의 지극정성 간호에도 정연이는 아직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식사는 물론 배변활동도 스스로 하기 어렵고, 인지 수준이 2개월 영아 수준에 멈추어있는 상태입니다. 키는 130cm까지 자랐지만 몸무게가 16kg밖에 되지 않아 부모님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정연이가 부모님을 향해 웃어주면 걱정되고 힘들고 괴로웠던 마음이 싹 씻겨나간다고 합니다.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지 정연이는 천사같은 미소를 보이며 발그레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정연이와 가족을 만나고 돌아오며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굳건해진 가족, 그리고 해맑은 웃음이 떠나지 않는 정연이. 그 가족의 모습은 지난 10년 동안 서로를 얼마나 더 깊고 넓게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지난 10년의 힘들고 괴로웠던 시간을 순탄한 시간이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힘들고 괴로운 시간만도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정연이

제 핸드폰에 저장된 정연이 어머니의 카톡 사진이 자주 눈에 들어옵니다. 정연이 어머니의 카톡 사진의 주인공은, 늘 밝게 웃고 있는 정연이입니다. 정연이 어머니에게는 정연이를 포함하여 세 자녀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카톡 사진은 왜 늘 정연이일까?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형과 누나도 있는데...그 아이들도 참 예쁘던데...'
마침 카톡으로 안부를 묻는 어머니께 여쭤 보았습니다.
"어머니, 카톡 사진에 항상 정연이 사진을 걸어 두시네요?"
정연이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세 손가락을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그래도 가장 아픈 손가락이 정연이 같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머니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을 겪으실텐데...결국 그 아픔을 사랑으로 승화하여 여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수고를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해내는 한 어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확고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한 어머니가 있기에 정연이가 10년을 잘 지내왔듯이,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리라는 믿음이...

| 후원 신청 문의 |
1899-4774

| 후원 계좌 |
우리은행 322-058119-13-001
신한은행 140-006-896511
하나은행 810-213130-00104
예금주 : 밀알복지재단

오늘도 위대하고 강한 '어머니', 특별히 정연이 어머니를 통해 또 한 발자국 나아간 사랑을 배웁니다. 제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어머니들의 사랑을 닮아 세상에서 고통 받고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겠습니다.

글 _ 국내사업팀 김래홍 사회복지사

윤서의 뒷이야기 (2013년 9,10월호 소식지 참조)

윤서가 무사히 퇴원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마지막 수술이 잘 되었고, 밝게 뛰어 다니며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만큼, 더 다행이었고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윤서 어머니께서 감사 말씀을 남겨 주셨습니다.
"저희 모자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자분들 덕분에 저희가 수술을 7번 이상 받았습니다. 저 혼자서 결코 감당 못했을 텐데,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윤서의 상태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윤서가 비록 아직 아프지만, 앞으로 언어치료도 받고, 꿋꿋이 설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내일이 더 밝아 질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며 살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윤서를 위해 밀알복지재단에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윤서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윤서

마다가스카르 "암바나뚜바나학교 이야기"

아프리카 서부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암바나뚜바나학교를 소개합니다. 밀알복지재단과 2011년부터 인연을 맺은 암바나뚜바나학교에는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1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곳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강영숙 현지 행정간사가 전합니다.

페트라네 가족, 오리와 함께 날다

페트라

페트라네 집 / 학부모들과 면담중인 교사들

학교에 다니기 싫은 아이

페트라(11살, 남)네 가족을 처음으로 만난 건 올해 초였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계속 보이지 않아 그 이유를 선생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아이가 공부보다는 장사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안 하는 편이라 그냥 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답니다."

11살. 충분히 학교 공부보다 노는 게 더 재미있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배움을 통해 더 큰 세상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이 아이가 놓치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부모님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을 만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속사정은 이러했습니다. 페트라의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계신 어머니를 돌보느라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연로한 페트라의 부모님이 일거리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채석, 논 일 등 어떤 일이라도 닥치는 대로 했지만 일주일에 겨우 2,500원 남짓을 벌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수입으로 여섯 식구가 생계를 이어나가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먼 미래를 준비시키는 교육은 어쩌면 사치처럼 느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오리를 키워보고 싶습니다."

페트라네 가족은 가지고 있는 땅도 없고 이곳 토박이가 아니라 소작을 하기에도 여의치 않아서 가축을 기르는 일이 제일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오리는 이미 길러봤기 때문에 먹이와 새끼들을 구입할 작은 종자돈만 있으면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고 했습니다. 오리를 기르면서 일 년 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종자돈을 빌려드렸습니다.

새끼오리와 함께 자라난 희망

아직 학령기가 아닌 막내를 제외하고, 세 남매는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며 웃음을 지어 보이십니다. 첫째 페트라와 둘째 마리얀은 5월에 열렸던 그림대회에서 수상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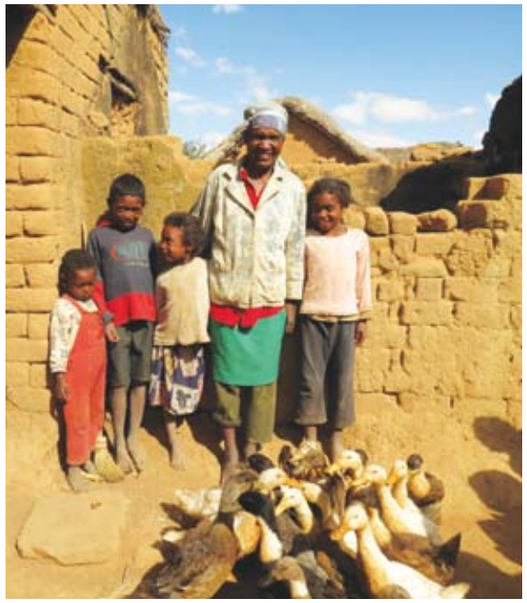
"의사가 되고 싶어요."

페트라는 수줍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페트라와 둘째 마리얀은 의사가, 셋째 엘린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6월. 페트라의 아버지는 꼬깃꼬깃한 봉투에 처음 약속했던 금액을 가져오셨습니다. 오리들이 잘 자라서 상인들에게 팔 수 있었던 덕분에 더 좋은 종자의 오리 새끼들을 살 종자돈도 마련하고, 빌린 돈도 갚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닥쳐도 웃으면서 "치마닌나(괜찮아)"라고 답합니다. 웃음이 많고, 여유가 넘치는 사람들. 하지만 그 웃는 얼굴들을 잘 살펴보면 여유로움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려운 현실을 바꾸고자 노력했지만 매번 실패하게 되면서 내일을 꿈꾸고 준비하는 일을 멈추게 된, 역사 속 아픔이 배어 있는 것이지요. 작은 관심, 작은 도움이었지만 이를 통해 페트라의 가정이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페트라네 가족처럼 밀알과 함께 걷고 있는 모든 아이들이 힘든 오늘을 극복하게 되기를, 그리고 넘어져 있는 누군가에게 손을 뻗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글 _ 마다가스카르 강영숙 간사



집 앞에서 오리들과 페트라네 가족

키우는 오리들

정새롬 후원자가 직접 경험한 "밀알의 나눔세상 돋보기"

정새롬 카피라이터가 전하는 나눔이야기 공간입니다.
밀알복지재단에 후원중인 정카피라이터가 느끼고 배우고 경험한 나눔이야기를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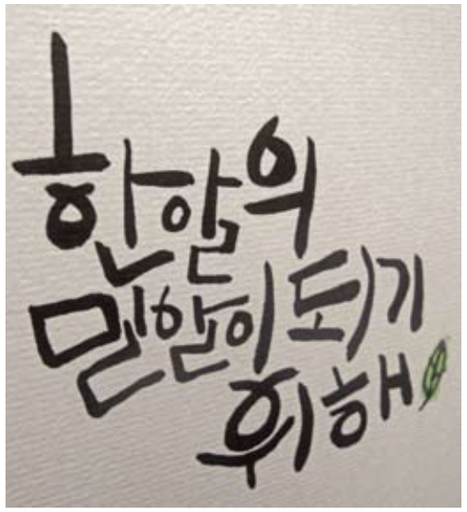
마지막, 그 설렘의 시간

찬바람에 문득 겨울의 자락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밀알의 소식지와 인연을 맺은 지도 1년이 다되어 가네요. 책상 앞에 앉아 때 이른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며 여섯 번째 이야기를 쓰고 있는 지금, 조금의 설렘과 조금의 서운함이 스쳐갑니다. 인생에 대해 논하기에 스물일곱이라는 나이는 참으로 가소로운 때이지요. 하지만 이곳에 글을 쓰기로 결심한 이유는 삶이 아닌 나눔을 논하기에 지금보다

좋은 시기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들 때 실행하라. 이것은 제가 첫 번째 기고부터 늘상 해오던 이야기입니다. 그 무모한 정신이 없었더라면 감히 이곳에서 밀알의 가족들을 만날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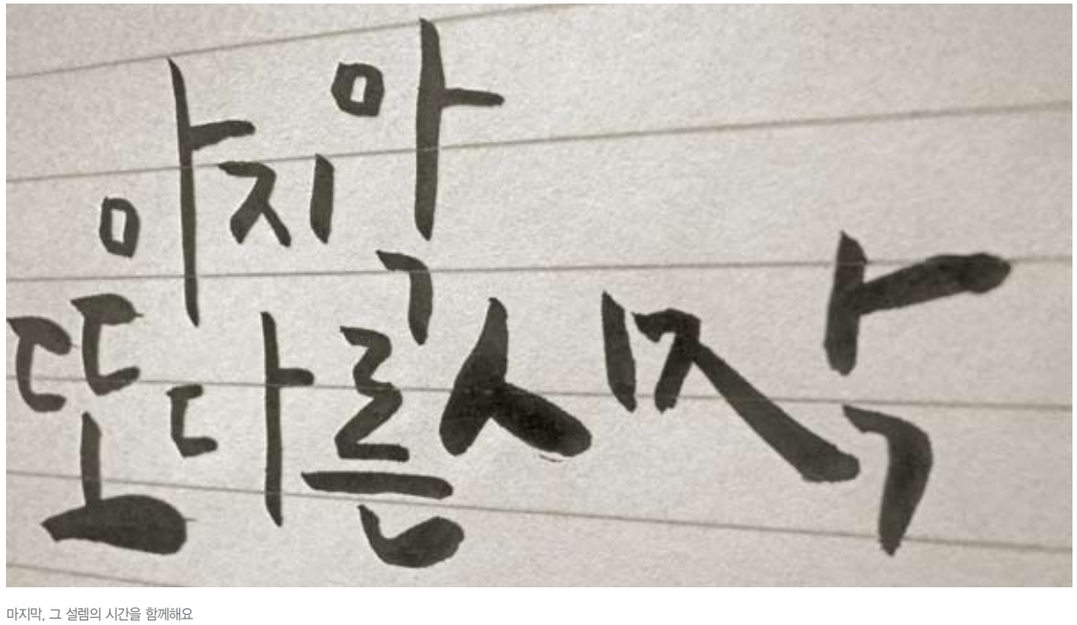
그동안의 시간들은 저에게 참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우선 마음이 따뜻한 밀알의 가족들과 긴밀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나눔에 대한 생각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으며 세상 누구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일들입니다.

밀알. 쭉정이는 날아가고 그 자리에 남은 묵직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 생명은 누군가의 양식이 되어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기 위한 수많은 과정들은 참으로 나눔의 그것과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거칠기 짝이 없는 서툰 마음뿐이었지만 거기에서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찾아 거르고 또 걸러, 이렇게 성장한 마음을 만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아마도 이 소식지와 함께한 1년간의 시간은 제 안의 쭉정이를 걷어내는 밀알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한 밀알들이 많이 있겠지요. 살아가며 그것들을 하나 둘 찾아가는 재미.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일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걸러져야 할까요?

지난 다섯 번째 이야기에서 말씀 드렸듯이 저는 이제 약 20일 후면 호주로 떠나게 됩니다. 사실, 낯선 공기와 낯선 사람들 속에서 계획했던 나눔을 잘 할 수 있을지 많은 걱정이 듭니다. 저를 잘 아는 지인들은 길이나 잃지 않으면 중간은 한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평소보다 정확히 두 배 바보 같은 웃음을 지으며 '중간보단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말합니다. 저의 이 바보 같은 웃음에는 누구보다 날이 선 용기가 깃들어 있으니까요.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잘해 볼 자신은 있습니다. 내 뒤에는 나눔을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내 앞에는 이 나눔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글을 읽는 당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만나게 될 당신. 이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에 기적을 일으켜줄 단 하나의 비밀들입니다.



마지막, 그 설렘의 시간을 함께해요

이렇게 소식지를 통한 인사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지면 위에서 밀알의 당신과 함께 하지 못함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또 다른 시작을 전제한 설렘의 시간이기도 하여 그리 섭섭하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재단에서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밀알 홈페이지 속 공감 코너에 캘리그라피와 짧은 글들을 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동안 한 사람의 부족한 나눔 성장기를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013년의 물리적인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나눔을 담을 수 있는 감동적인 시간은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그 설렘의 시간을 나눔으로 채워보세요. 이것이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저의 마지막 행복비법입니다. 끝.

※ 정새롬 후원자가 직접 경험한 "밀알의 나눔세상 돋보기"는 이번 회로 연재가 종료됩니다.

정새롬 카피라이터

글로 세상과 소통하는 이야기꾼입니다. 현재 이랜드 리테일의 웹 카피라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나눔의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며,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꾼'이 되고자 합니다.

장애아 부모로 산다는 것

오마이뉴스와 밀알복지재단이 함께하는 '장애아 부모로 산다는 것'은 장애인을 자녀로 둔 그들의 마음에 다가가 장애인들의 삶을 조명해보는 캠페인입니다.

"ET 같던 내 딸, 기적처럼 살아났어요"

흔히 '장애아'라고 하면 '불쌍하다' '안됐다' 등의 말이 따라붙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 '행복하다' '네 덕분에 산다'며 미소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입니다. 사회의 편견을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사랑으로 사는 그들. 〈오마이뉴스〉와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www.miral.org)이 이들을 만나러 갑니다.

"2003년 초 지인의 전화를 받았어요.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키우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버려지게 생겼다고요. 혹시 입양기관 같은 곳을 알면 소개해 달라는 거예요. 그 전화에 왜 그렇게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쏟아지는지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혼자 울었어요."

10년 전 그날. 강희숙(58)씨는 전화 너머로 갓 태어난 한 아기의 이야기를 들었다. 1.7kg 미숙아로 태어난 여자 아기.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큰 아기. 극심한 불화로 별거 중이었던 친부모에게는 이미 세 자녀가 있었고 7개월이 될 때까지는 임신 사실조차 몰랐던 친모는 출산 전날까지 술에 취해 있었다고 했다.

아기가 태어났지만 친부는 아기를 자신의 아이로 인정하지 않았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식임을 확인했지만, 이번에는 장애아라는 이유로 아기 이름을 호적에 올리는 것(출생신고)조차 거부했다. 친모 역시 아이를 품지 못했다. 제 한 몸도 챙기기 어려운 상황에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울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질 운명에 놓인 가여운 아기와 희숙씨는 어떤 운명의 끈이 이어졌던 것일까. 전화 한 통화로 아기는 희숙씨의 가슴에 들어와 버렸다. 마치 자신이 낳은 아이인양 아프고 또 아파서, 가엽고 애처로워서 데려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이가 마음에 걸려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아이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 마흔여덟. 젊지도 않은 나이에 남편(이상일씨 · 61)의 사업 실패로 오갈 데가 없어 철거를 앞둔 청계천 삼일아파트에 들어가 살 때였어요. 삼일아파트에 비하면 지금 지하방은 천국이지요. 아이를 데려다 키울 만한 환경도 형편도 아니었어요."

새처럼 연약한 찬송이. 엄마의 사랑을 먹고 큰 아이다.

그날 이후, 찬송이는 울지 않았다... 커지던 머리가 점점 작아졌다

찬송이는 선천성 무뇌수두증이라는 희소질환을 가지고 태어났다. 5만 명 중 1명꼴로 발생한다는 무뇌수두증은 대뇌가 있어야 할 자리에 뇌척수액이 가득 차는 질병으로 흡수되지 못한 척수액 때문에 머리 둘레가 비정상적으로 커진다는 특징이 있다. 찬송이는 머리에 찬물을 빼는 기관 삽입 수술도 하지 못했다. 수술을 이겨 낼 정도의 건강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아이를 데려왔는데 머리가 풍선처럼 부풀어 있고 팔다리는 새처럼 앙상한 게 말 그대로 ET 같더라고요. 생후 한 달인데 머리 사이즈가 50.5cm였어요. 보통 아기보다 두세 배는 컸죠. 척수액이 고이면서 머리가 자꾸 커지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 아이가 24시간 울기만 하는 거예요."

아이는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주사기를 이용해 콧줄에 분유 30mL를 흘려 넣고 나면 몇 배나 더 많은 것을 토해내기 일쑤고 매일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머리로 인한 통증 때문에 한숨도 못 자고 울기만 했다.
그렇게 울던 찬송이가 울음을 그친 것은 4살 때다. 갈라진 두개골 사이로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물이 차올라 응급실로 달려간 그날. '이제 아이를 보내는구나' 싶었지만 고였던 척수액

를 빼내는 수술을 받고 4박 5일을 견딘 찬송이는 기적처럼 엄마 품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로 찬송이는 울지 않았어요. 기적처럼 더 이상 머리도 커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조금씩 작아졌지요. 하지만 그때 이후로는 소변도 대변도 스스로 하지 못하게 됐어요. 아이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서 관장을 하거나 소변 줄을 끼워줘야 하죠."

찬송이와 엄마 희숙씨

"차라리 시설 보내라는 말... 고민되지만 함께 삽니다"

장애아 부모로 살려면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한다. 장애아를 가진 부모는 아플 권리마저 없기 때문이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살아 장애를 가진 내 자식의 마지막까지 뒷바라지 해주는 게 모든 장애아 부모들의 소망이다. 하지만 자신은 뒷전에 두고 온 신경을 아이에게만 쏟다가 큰 병에 걸리는 부모도 적지 않다. 희숙씨도 마찬가지다. 지난 10년 건강한 몸 하나만 믿고 살아왔는데,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나다 보니 엄마만 바라보고 사는 찬송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제가 힘들 때 늘 찬송이가 저를 일으켜 세워줬어요. 남편 사업 실패하고 다 무너져가는 청계천 삼일아파트에서도 살았고 지금 사는 이 지하교회에서 더운 여름도 추운 겨울도 다 지내고 살았어요. 가난했지만 뭔가를 빌리러 가지 않았고 우리 찬송이 먹이는 것, 입히는 것, 기저귀며 휴지며 약이며 넉넉하진 않아도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쓰고 살았지요.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 자신이 없어지네요. 나이가 들고 건강이 전 같지 않아서 그런지 마음이 자꾸만 약해져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찬송이를 키우느니 차라리 장애인 시설을 알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던 보건소 직원의 말에 부모가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어떻게 내 새끼를 시설에 보낼 수 있냐며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펄쩍 뛰었단다. 하지만 그것조차 부모의 욕심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고.

시설에 가면 햇볕도 바람도 쏘일 수 있고 더위와 추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잘 씻기고 잘 먹일 것 같아서... 일 년 내내 습하고 햇볕 한 조각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지하실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그러나 그것도 잠시 아이를 떼어 놓는다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져 눈물이 쏟아져 버린다.

찬송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님께 이렇다 할 조언을 드리지 못했다. 나 역시 찬송이를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찬송이 엄마의 건강이 회복되고 찬송이 아버지의 경제적 상황이 좋아져 찬송이가 부모 품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길 바랄 뿐. 그것이 찬송이 부모도 찬송이도 간절히 바라는 게 아닐까 싶다.

작은 교회 목사인 아빠 이상일씨. 낮에는 목회 밤에는 대리운전을 한다.

글 _ 김혜원 기자 **사진** _ 추연만 사진작가

법인사무국 소식

SK건설 가족봉사단과 추석맞이 봉사활동
9월 7일, 밀알복지재단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서 SK건설 임직원 봉사활동으로 '전통음식 나누기'가 진행되었다.

기아자동차와 함께하는 '사랑의 명절 장바구니'
9월 12일, 밀알복지재단 대청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아자동차 수출기획팀 임직원들이 홀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밀알첼로앙상블 '날개' 음악발표회
9월 13일, 밀알아트센터 세라믹팔레스홀에서 발달장애아동들로 구성된 '날개'가 음악발표회를 열었다. 1년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무대였다.

홍정길 이사장, CBS TV 출연
9월 14일, 홍정길 이사장이 CBS 〈크리스천 NOW〉에 출연했다. 밀알복지재단 20년사를 중심으로 홍정길 이사장이 걸어온 삶의 여정을 다뤘다.

노인의 날 맞아 '행복을 나누는 빵' 전달
9월 26일, 밀알복지재단과 파리바게트 강남 · 서초 점주들이 십시일반 나눔의 뜻을 모아 홀몸어르신들에게 약 1천개 정도의 빵을 전달했다.

정형석 상임대표, POST-2015 UN회의 참석
정형석 상임대표가 9월 21일~29일 일정으로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이번 출장은 KCOC가 주관하는 '개발NGO 대표자 국제연수' 참가를 위해 이뤄졌다.

필리핀 파그라움센터 기공식
10월 3일, 필리핀 세부 막탄 사업장에서 장애인 시설인 파그라움센터 기공식을 진행했다. 파그라움센터에는 장애인과 보조교사 약 50명 정도가 거주하게 될 예정이다.

제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
10월 10일, 법인사무국에서 제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진행되었다. 금번 위원회 검토를 통해 기니비사우,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태국 핏사눌록, 방글라데시 가지뿔 등 총 4개 지역의 사업이 시작되었다.

말라위 치소모밀알센터 추가 공사
말라위 장애인지원센터인 치소모밀알센터 추가 공사가 시작되었다. 직업재활시설과 주간보호센터 일부 공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번에 추가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밀알그린보호작업장 설치
밀알복지재단은 8월 19일부터 밀알그린보호작업장을 설치하여 추가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한화생명과의 연계고용에 따라 작업 공간을 확장할 필요가 있어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

산하시설 소식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4회 다문화가족 합동 결혼식'
10월 17일, 포스코와 강남구의 공동지원으로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제4회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을 진행했다.

강남구직업재활센터, 2013 강남구 사회복지박람회 참가
9월 28일, 2013 강남구사회복지박람회에 강남구직업재활센터가 직업재활시설을 대표해서 참가했다.

한우리주간보호시설, 추석 기쁨 함께 나눠
9월 13일, 이용자와 이용자의 보호자들을 모시고 함께 송편을 빚고 다과를 나누었다.

보호작업장 사회적응훈련 실시
밀알보호작업장은 남산과 광릉수목원에서, 밀알베이커리는 롯데월드, 우리플러스작업장은 어울림체육대회에 참가하여 보다 나은 사회성을 기르는 훈련을 했다.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온가족 품앗이 나눔장터 진행
10월 12일, 온가족 품앗이 나눔장터가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앞에서 열렸다.

해마을주간보호센터 지역사회적응활동 코스모스 축제 참여
해마을주간보호센터는 10월 10일, 구리시민한강공원의 코스모스축제에 참여했다.

굿윌스토어 도봉점 가을캠프
굿윌스토어 도봉점은 10월 9~10일, 전직원 캠프를 강원도 평창에서 진행했다.

굿윌스토어 송파점 '한마음캠프'
9월 3~5일, 굿윌스토어 송파점 전 직원이 제주도에서 '한마음캠프'를 진행했다.

대청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일자리사업 어르신 나들이
9월 26일, 노인일자리사업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물향기 수목원에 다녀왔다.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제13회 도봉어르신문화축제 실시
10월 14일, 복지관 개관 13주년 기념 및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도봉어르신문화축제가 실시되었다.

도봉시니어클럽 박소라 사회복지사 '도봉구청장'상 수상
제14회 사회복지의날 기념식에서 도봉시니어클럽 박소라 사회복지사가 '도봉구청장'상을 수상했다.

도봉재가노인지원센터 이용자 간담회 실시
도봉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는 종합 돌봄 이용자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면일어린이집 장애아동 가족행사 참여
10월 11일, 전국 장애아동이 가족들과 함께 하는 '행복한 가족 나들이' 행사에 참여했다.

밀알주 · 단기보호센터 하반기 현장학습 실시
밀알주 · 단기보호센터에서는 10월 18일 용인에 있는 한국민속촌으로 현장학습을 다녀왔다.

산하시설 소식

도봉실버센터 '2013년 가족간담회' 진행
10월 5일, 2013년 하반기 가족간담회가 진행되었다.

밀알학교와 미하라 특별지원학교 교류식 진행
10월 17일, 밀알학교에서 미하라 특별지원학교와 밀알학교가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는 교류식을 진행하였다.

부암어린이집 전교원 가을소풍
10월 2일, 부암어린이집 전교원이 벽초지 수목원으로 즐거운 가을소풍을 다녀왔다.

서울도봉실버센터, 어르신과 함께하는 신바람 캠프 진행
8월 30일 ~ 31일, 안성허브마을과 서일농원으로 1박 2일의 신바람나는 캠프를 다녀왔다.

서초구립 중앙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생활체육 경연대회 참가
서초구립 중앙노인종합복지관 고운매예술단은 10월 16일 어르신 생활체육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한국무용 기량을 마음껏 뽐냈다.

안산밀알보호작업장 사회복지의날 행사 참여
9월 6일, 제14회 안산시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맞이하여 근로장애인 댄스팀 '밀키스'가 공연에 참가했다.

안산시장애인복지관 독서치료 진행
9월 12일, 성인팀에서는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성인지적 장애인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독서치유 및 문화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안산온유한주 · 단기보호센터 하반기 부모간담회&부모교육 진행
안산온유한주 · 단기보호센터에서는 9월 27일 하반기 부모간담회 및 부모교육을 진행했다.

중림어린이집 가족 한마당 운동회
9월 27일, 중림어린이집에서는 가족 한마당 운동회를 열었다.

청마을어린이집, 재난교육 실시
9월 13일, 강남구청에서 재난교육을 실시해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배웠다.

청밀 업무협약식 진행
10월 14일,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 송파지역자활센터와 사회적기업 청밀이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 가을 나들이 진행
10월 4일,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 근로장애인들은 경기도 용인으로 가을나들이를 다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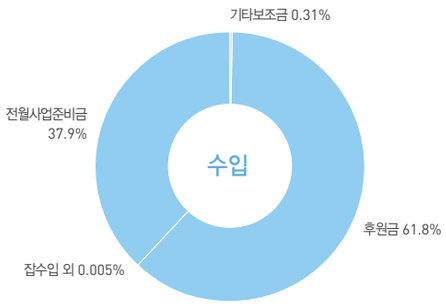
안산밀알센터 염전체험 및 단원미술제 관람
지난 10월 4일과 7일, 안산밀알센터에서는 염전 체험 및 단원미술제를 관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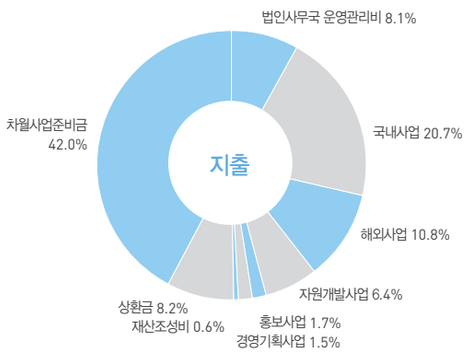
목련어린이집 부모참여행사 진행
9월 30일, 만3세, 만4세, 만5세 학급의 부모님을 초대하여 '옛날과 친구되기'라는 주제로 부모참여행사를 진행했다.

2013년 9월~10월
밀알복지재단 결산보고

단위: 원

수입			
총계		2,840,248,879	100.0%
보조금	기타보조금	8,679,560	0.31%
후원금	후원금 소계	1,755,778,648	61.8%
	· 비지정후원금	1,203,995,454	68.6%
	· 지정후원금	551,783,194	31.4%
잡수입 외		140,305	0.005%
전월사업준비금		1,075,650,366	37.9%





단위: 원

지출			
총계		2,840,248,879	100.0%
법인사무국 운영관리비	소계	229,137,771	8.1%
	· 인건비	134,421,780	58.7%
	· 업무추진비	5,004,500	2.2%
	· 운영비	89,711,491	39.2%
국내사업	소계	588,124,593	20.7%
	· 장애인복지사업	485,349,773	82.5%
	· 노인복지사업	49,130,610	8.4%
	· 지역복지사업	24,262,500	4.1%
	· 아동복지사업	13,560,000	2.3%
	· 기타사업(문화, 일자리 등)	15,821,710	2.7%
해외사업	소계	306,151,753	10.8%
	· 아동결연사업	114,850,321	37.5%
	· 아동지원사업	16,053,840	5.2%
	· 장애인지원사업	44,160,082	14.4%
	· 보건의료사업	37,571,546	12.3%
	· 분야별특별사업	65,273,713	21.3%
	· 국제협력사업	18,335,460	6.0%
	· 해외사업국운영지원	9,906,791	3.2%
자원개발사업	소계	182,801,283	6.4%
	· 미디어개발사업	34,855,376	19.1%
	· 화원서비스사업	65,705,623	35.9%
	· 온라인사업	33,464,288	18.3%
	· CSR협력사업	44,185,386	24.2%
	· 오프라인/교회협력사업	4,590,610	2.5%
홍보사업		48,374,160	1.7%
경영기획사업		42,562,275	1.5%
재산조성비		18,147,840	0.6%
상환금 외		231,647,637	8.2%
차월사업준비금		1,193,301,567	42.0%

2013년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안내

밀알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신 회원님,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선행!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혜택 받으세요. (※ 2013년도 연말정산 영수증은 2014년 1월 초 밀알 소식지와 함께 발송될 예정입니다.)

1. 기부금 영수증 합산 기준

2013년 1월 ~ 12월까지의 후원금액

※ 지로로 납부하는 회원님의 경우 12월 26일까지 입금해주셔야 2013년도 후원금으로 영수증이 발행됩니다.

2. 지정기부금 공제제도 안내

▷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 정기.비정기를 포함한 일반 후원금으로 총 소득금액의 30% 이내

▷ 지정기부금 공제 대상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포함)가 지출한 기부금

▷ 지정기부금 이월 공제 : 5년(소득세법 제52조 제8항)

3.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확인 사항

▷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한 뒤 변경 사항을 수정해주십시오.

· 방법1 _ 홈페이지 : 로그인 → 회원정보수정에서 변경

· 방법2 _ 회원전용번호 : 1600-0966을 통해 확인 및 변경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회원님의 성함과 주민번호가 정확해야 합니다.

4.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수령방법

① 우편으로 수령

2014년 1월 초 우편으로 일괄 발송됩니다.

②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발급

http://www.yesone.go.kr/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서비스 이용 시점부터 가능)

③ 홈페이지(로그인) → 나의후원공간 → 나의후원내역 → 기부금영수증 → 출력

밀알복지재단 회원관리팀

회원전용전화 **1600-0966** (상담시간 : 평일 am 09:00 ~ pm 06:00)